

스탠드 조명 50만원, 토스터기 32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

사치와 가치 사이... 필수 가전 프리미엄 열풍

다이슨 '데스크조명' 국내 첫 출시 자연광 재현... 최고 96만원 달해 가치 소비, 주거 형태 등 변화로 고가에도 입소문 타고 판매량 ↑

가전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열풍이 거세다.

탁상용 조명과 주방용 틸트 가전, 공기청정기 등이 성능과 혁신 기술, 디자인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한창이다. 가격이 통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탠드 조명이 50만원

1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라이트 사이클 데스크 조명'을 국내에 최초로 출시했다. 9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2년여를 개발한 다이슨의 야심작이다.

다이슨 조명은 데스크형과 플로어스탠드형으로, 각각 66만원과 96만원에 판매된다. 심플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시간에 따른 자연광을 재현해내는 기능까지 탑재했다. 사용자와 모드에 따라 서로 맞춤형 조명을 제공하며, 60년동안 빛의 품질을 유지하는 내구성도 갖췄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은 일본 발뮤다가 만든 더 라이트뿐이다. 스탠드 조명이지만 가격이 49만9000원이나 된다. 아



삼성전자 모듈형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큐브(왼쪽)와 하우스룩 라면조리기.



/각사

마다 의료조명과 공동 개발한 '포워드뷰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적용해 그림자 없는 자연 백색을 구현해내는 제품이다.

발뮤다는 주방 가전에서도 색다른 프리미엄 바람을 불러온 주인공이기도 하다. 빵을 촉촉하게 데워주는 31만9000원짜리 토스터기를 통해서다. 비싼 가격에 유통망도 좁은 편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젊은 소비자 주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라면조리기는 1인가구와 '쉐어하우스'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기를 얻게된 신개념 주방 가전 제품이다. 최근 출시된 하우스룩은 인덕션에 온수기 기능을

품에 안고 라면조리뿐 아니라 젓병 소독 등으로도 활용을 확대한 상태다. 50만원대에 달하는 가격이 아직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는 '홈브루잉'이 '대세'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LG전자가 'LG 홈브루'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캡슐커피와 같이 맥주 캡슐과 물만 넣으면 2~3주 후에 맥주 5l (리터)를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지난 'CES 2019'에서 큰 기대를 받기도 했다.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 예상됨에도,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출시

를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 소비도 늘었지만 주거 형태 변화로 필수 가전 대신 자주 쓰는 가전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사치가 아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기청정기 100만원 시대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시장 규모가 매년 50% 가량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전 브랜드들은 앞다퉈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출고가 149만원에 출시된 LG 전자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 가습 공기청정기가 경쟁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서 LG오브제에서도 199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큐브는 무풍청정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분리·합체가 가능한 모듈형으로 주목받았다. 출가는 80만~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이슨도 날개 없는 선풍기 기술을 이용한 퓨어쿨과 핫엔쿨을 상반기와 하반기 잇따라 내놨다. 특히 온풍기 겸용 공기청정기 핫엔쿨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이은 두번째 출시국으로 선정해 주목도가 높았다. 가격은 각각 70만, 90만원대다.

올해에는 발뮤다도 경쟁에 동참했다. 6년만에 새로 출시한 '발뮤다 더 퓨어'다. 6년만에 나온 신제품이지만,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를 감안해 일본보다 먼저 출시했다. 정제된 디자인에 항공기 체트 엔진 기술을 응용했다. 가격은 74만9000원이다.

여기에 개인용 공기청정기까지 시장을 선을 보였다. 스위스 아이큐에어가 만든 '아템'으로, 저전력과 고성능을 표방하고 있다. 가격도 무려 73만7000원으로 다른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와 차이가 없다.

/김재용기자 yuk@metroseoul.co.kr

LG CNS, 아마존과 손잡고 클라우드 가속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50 in 50 전환 프로그램 첫 도입

LG CNS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국내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한다. LG CNS는 15일 AWS와 클라우드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LG CNS와 AW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보다 빠르고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는 AWS의 글로벌 클라우드 전문성, 탁월한 안정성, 보안 및 성능에 LG CNS의 우수한 국내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통합, 국내 기업들의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LG CNS는 AWS가 보유한 50일 안에 50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 in 50 전



지난 15일 열린 LG CNS-AWS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식에서 김영섭 LG CNS 사장(왼쪽)과 에드렌타(Ed Lenta) AWS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디렉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환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양사는 이 프로그램을 LG CNS의 일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먼저 적용한 후, LG 계열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 클라우드 전환으로 확대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5G, 인공지능, IoT, 스마트팩

토리 등 신기술 영역의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한다.

LG CNS와 AWS는 2017년 클라우드 분야 포괄적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LG CNS가 대한항공 전사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2000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양사가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LG CNS 본사에서 김영섭 LG CNS 사장, 현신균 CTO 부사장, 이재성 하이테크사업부장 부사장, 최문근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 상무, 에드렌타AWS아시아태평양지역(APAC)총괄 디렉터, 장정욱 AWS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세운 기자 yun2514@



LG이노텍,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 성료

LG이노텍이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R&D캠퍼스에서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동 사장(앞줄 가운데)과 이용기 구매담당(상무),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LG이노텍은 '협력사 테크 페어'를 열어 협력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LG이노텍

빅스비 탑재... 삼성 '갤럭시 탭 S5e' 공개

무게 400g, 두께 5.5mm '슬림형'

삼성전자가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5e'를 17일 공개했다. 무게 400g, 두께 5.5mm의 메탈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갖췄다.

갤럭시 탭 S5e는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기술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 등으로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물리적 홈 버튼을 제거하고 디스플레이



갤럭시 탭 S5e. /삼성전자

이의 상하단 베젤을 최소화해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16:10의 화면비로 보다 향상된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갤럭시 탭 S5e는 3D 입체 서라운

드 음향효과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로 사용하는지 세로로 사용하는지 인식해 자동으로 스피커를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탭 S5e는 삼성 태블릿 최초로 '빅스비 보이스'를 탑재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탭을 통해 빅스비와 연동된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단축 명령어' 기능을 통해 한번의 음성 명령으로 복합적인 다양한 작업도 실행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5e는 실버, 블랙, 골드 3가지 색상으로 2분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구세운 기자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선)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김재용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